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우리의 미얀마 진출 기업 피해 우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에 따라 민주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 만에 미얀마 민주주의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3월 27일 '미얀마군의 날'에는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을 가해 어린이 포함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숨졌다. 미얀마 군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 3월 31일에 2021년 4월 30일까지 작전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모든 교역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희망하지만 경제제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기준 미얀마 전체 교역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3%의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발 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세안은 국별로 입장이 상이한데 태국, 캄보디아는 미얀마 내정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경제적인 제재보다는 평화 및 법적 해결 등을 강조했다.

한-미얀마 교역은 2012년 양국 간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인 201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국의 對미얀마 수출은 5억 8,000만 달러이며 수입은 4억 7,000만 달러로 1억 1,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한국은 8,500만 달러 규모의 ODA 공여국이며, 미얀마는 우리나라 ODA 중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미얀마 직접 투자는 6,800만 달러이다. 그중 금융업이 투자금액 기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5%,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이 5%로 뒤를 잇고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250여개의 한국기업 중 100여개의 기업이 봉제 기업이며, 다음으로 금융기업이 28개로 그 비중이 크다.

인명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의류·봉제업에 해당하는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한세실업, 세아 등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금융업 중 국민, 우리, 농협, 대구, 수협, 하나, 수출입, 산업, 기업, 신한 등이 현지법인, 사무소, 지점 등을 통해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철수하지도 못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 BBC NEWS 2021.4.1, 한국무역협회통계, 수출입은행통계.
안유나 | 부연구원·신남방산업실 yuna_ahn@kiet.re.kr